

경단녀 140만명 '역대 최저'...10명 중 4명 "육아 때문에"

통계청 '상반기 기혼여성 고용 현황' 발표 경력 단절 여성 17.2%...통계 작성來 최저 경단녀 85.1%가 30·40대...10년 이상 최다

올해 상반기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이 14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 여성 10명 중 4명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 810만 3000명 중 취업 상태가 아닌 여성은 302만 7000명(37.4%)이었다.

이 가운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139만 7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4만 8000명)과 비교해 5만 1000명(-3.5%) 감소했다.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은 1년 전(17.4%)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17.2%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여성 규모와 비중은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자연적인 인구 감소 영향으로 경력

단절 여성 수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15~54세 기혼여성 수는 지난해(832만 3000명)보다 22만 명 감소했다. 다만 통계청은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이 줄어드는 건 정부의 정책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력 단절 이유를 보면 '육아'를 꼽은 사람이 59만 7000명(42.8%)으로 가장 많았다. 경력 단절 여성 10명 중 4명이 육아로 인해 하던 일을 그만뒀다는 이야기다. 이어 결혼 36만 8000명(26.3%), 임신·출산 31만 8000명(22.7%), 가족 돌봄 6만 4000명(4.6%), 자녀교육 5만 명(3.6%) 순이었다. 경력 단절 이유 대부분이 감소했지만, 가족 돌봄 규모만 전년보다 28.7%(1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경력 단절 여성 40대와 50대의 사유를 보면 가족 돌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60만 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58만 8000명(42.1%)으로 뒤를 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 중 85.1%가 30대와 40대라는 것이다. 이와 50대 15만 2000명(10.9%), 15~29세 5만 7000명(4.1%)이었다. 경력 단절 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이 57만 2000명(41.0%)으로 가장 많았다. 5~10년 미만 35만 7000명(25.5%), 3~5년 미만 19만 8000명(14.1%), 1~3년 미만 15만 2000명(10.8%), 1년 미만 11만 9000명(8.5%) 등이

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453만 6000명 중 경력 단절 여성은 114만 6000명으로 25.3%를 차지했다. 자녀 수는 2명이 55만 1000명(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1명 48만 5000명(42.3%), 3명 이상 11만 명(9.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가 64만 6000명(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7~12세 36만 3000명(31.7%), 13~17세 13만 7000명(12.0%)이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는 262만 2000명이며 고용률은 전년보다 1.6%p 오른 57.8%로 집계됐다. 이들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5.6시간으로 전년보다 0.4시간 감소했다. 서선욱기자



2022 따뜻한중구만들기(溫)정나눔' 행사 22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 기독교 중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2년 따뜻한 중구 만들기 '온(溫)정나눔'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저소득층 이웃에게 전달할 연탄을 옮기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주변 6000곳 점검 실시

정부 합동점검 결과, '안전미흡' 143만건 적발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 미흡사항 143만 2710건이 발견돼 개선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720개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간 실시한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에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43만 2710건의 위험·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1학기 점검 적발 건수보다 48.2%(46만 6184건) 증가한 것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4만 7614건 적발돼 과태료·법적금 47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해 안전 울타리 미설치와 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위험 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1만 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 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와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 3678개소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점포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린이 고가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부착했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했다.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1만 1297개소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 현수막 등 138만 3563건을 점검했으며, 과태료 27억원과 이행강제금 9100만원을 부과했다. 행안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 관리를 할 예정이다. 관계자 교육과 우수사례 전파 등도 추진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 안전 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금전 문제로 아내 살해 50대 남성 경찰 조사

금전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불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 B(55)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3일만에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안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